

고등교육에서의 원주민운동의 주도성: 민주주의의 심화에 대한 기여

다니엘 마토*

사회운동들의 이념은 종종 공적인 공간에서의 저항과 제도적인 공간에서의 협상과 연관되곤 하는데, 운동의 실천들은 서로 다른 방식과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전개된다. 이 논문은 원주민운동의 활동 중에서 중요한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적절한 제도들의 창출이나 '기존' 제도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고등교육에서 실현되고 있는 노력들이 그것이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이러한 주도적 활동들은 분별력 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을 양성하게 해주며, '공식적인 것'과는 다른 세계관에 개방적인 실천들이 발전하도록 해주고, 그럼으로써 아주 다양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핵심어: 원주민운동, 민주주의, 고등교육, 라틴아메리카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에서 볼 때, 사회운동의 이념은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분명한 입장들과 결합되는데, 사회적 행위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거나, 일련의 특정문제들에 대해 공적인 공간에서의 저항과 정치적 제도적 공간에서의 압력과 협상의 실현을 통해서 그 이념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을 따르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위자 집단들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영역에서 실천들을 전개한다. 예를 들면, 여성운동, 원주민운동, 흑인운동, 무토지농민운동, 인권운동, 동성애자운동 같은 여러

*Daniel Mato, 아르헨티나 2월 3일 국립대학 문화, 소통, 사회변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이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고등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국제기구의 문화적 다양성, 상호문화성과 고등교육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전자우편 <dmato2007@gmail.com>

운동의 대열 속에는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들과 공동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영역과 주도성에서 그러한 사회적 인간들을 돕는 봉사를 하는 데 헌신적인 전문가들과 기술자들도 있다. 또 다른 대열에서는 종종 이념을 전파하고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을 추진하곤 한다.

여타 다른 목적들 중에서도 경제적, 정치적, 표준적, 제도적 개혁들의 제안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적절한 몫을 확보하며,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하고, 실제로 적절한 기획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기술자, 정치가 집단을 가질 수 있으려면 결국, 교육 양식의 발전이 필요하다.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교육 양식을 이루는 것은 운동 조직들의 정치적 기술적인 집단의 형성을 위해서, 또는 그와 관련된 사회적 주체들을 위해서, 제한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교육과정과 양성소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운동들의 어떤 부문들은 더 나아가서 대학교육에,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교육제도들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도들과 제휴한다. 여성운동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성공을 이루었다. 아주 최근이기는 하지만, 원주민운동들과 흑인운동들도 그 자체로써 혹은 다른 활동가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뿐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경험을 했다.

이 논문은 라틴아메리카 몇몇 국가에서 원주민운동들이 스스로 창출한 제도들을 통해서 운동 참여자들이 발전시킨 고등교육의 몇 가지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고등교육 제도들과의 제휴 속에서 원주민조직들이 발전시킨 경험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경험들 중에 몇 가지는 아주 중요하지만 말이다.¹⁾ 같은 이유 때문에 흑인조직들이 추동한

1) 나는 특히 안티오키아 원주민 조직(OIA)과 페루 밀림지대의 발전을 위한 종족 협회(Aidesep)가 실현한 경험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자는 볼리바르 주교 대학과 안티오키아 대학과 연합하여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며, 후자는 로레토 고등교육 연구소와는 흥미로운 계획을 전개하고 아타라야 공립 고등기술 연구소와는 다른 것을 전개해 왔다. Guzmán Cásamo y Laura García Castro의 《Experiencias en educación Indígena de Antioquia y su Instituto de Educación Indígena en alianza co la Universidad pontificia Bolivarianan y la Universidad de Antioquia》, Lucy Trapnell의 《La experiencia del Programa de Formación de Maestro Bilingües

경험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언급할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하나,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촌락들과 흑인 촌락들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과정들과 불안정한 상황들 사이에는 중요한 유사성과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에서 흑인운동 조직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천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그 양상에 관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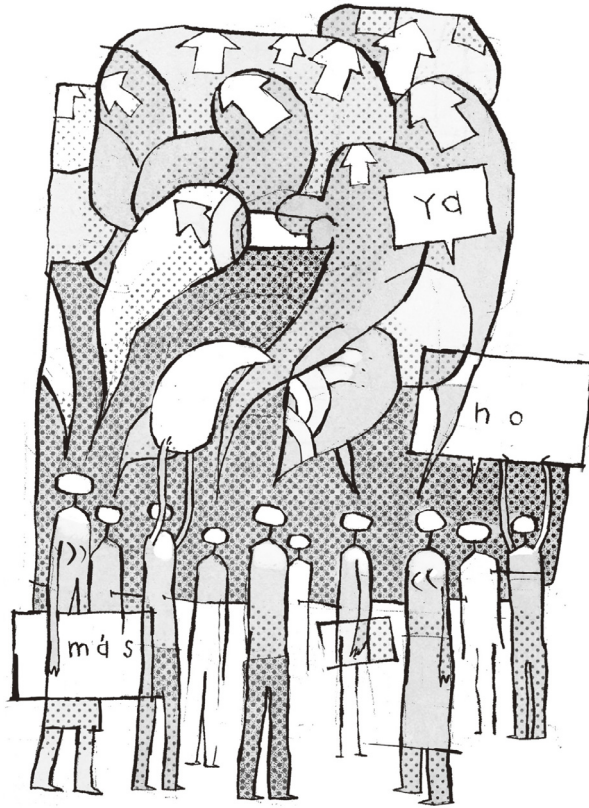
1. 역사적 사회적 맥락

원주민과 흑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와 중요성을 양적인 측면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몇몇 인구지수들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이 종종 이들의 조직과 정부 간의 논쟁의 동기가 되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국제적인 기관의 평가를 참고할 것이다.

원주민촌락들에 대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나 촌락의 사회인구학적

de la Amazonía Peruana》를 보라. 이 둘은 D. Mato(coord), *Diversidad cultural e interculturalidad en educación superior. Experiencias en América Latina*, Iesalc-Unesco, Caracas, 2008, <www.iesalc.unesco.org.ve>에서 이용할 수 있음. Raúl Rodríguez et al., 《Formación de enfermeros Técnicos en Salud Intercultural: una experiencia de cooperación en la Amazonía peruana》, D. Mato(coord.): *Educación superior, colaboración intercultural y desarrollo sostenible/buen vivir. Experiencias en América Latina*, Iesalc-Unesco, Caracas, 출판 중.

- 2)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고등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국제기구의 문화적 다양성, 상호문화성과 고등교육 프로젝트의 책들 중 첫 번째 것에는 흑인 조직들이 추진하거나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경험들에 관한 몇몇 보고서들이 들어있다. D. Mato(coord.), *Diversidad cultural e interculturalidad en Educación Superior*, cit.에 있는 Pedro A. Chavarría Lezama, 《La interculturalidad: un desafío ineludible de la Bluefields Indian & Caribbean University; Rubén Hernández Cassiani, 《Instituto de Educación e Investigación Manuel Zapata Olivella: una educación intercultural para reafirmar las diferencias》, Félix Suárez Reyes와 Ruth Lozano Lerma, 《Balance y perspectiva de la etnoeducación para la diversidad en la Universidad del Pacífico》; Alta Suzzane Hooker Blandford, 《La Universidad de las de las Regiones Autónomas de la Costa Caribe Nicaragüense(Uraccan): Logros, «innovaciones y desafíos》, Iesalc-Unesco, Caracas, 2009 en Mato(coord.), *Instituciones interculturales de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Procesos de construcción, lotros, innovaciones y desafíos*, Iesalc-Unesco, Caracas, 2009 en <www.iesalc.unesco.org.ve>를 보라.



© Nueva Sociedad / Patricio Betteo 2010

지표체제'(Sisppi),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인구센터(Celade),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경제위원회 인구분과(Cepal)의 자료들을 주된 참고자료로 택할 것인데, 이 기관들은 12개국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 출처에 따르면, 2007년에 전체 인구에 대한 원주민 인구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브라질 0.4%, 볼리비아 62%, 과테말라 41%로 편차가 있으며, 나머지 나라들은 중간 정도의 다양한 수치에 있다(칠레,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와 파나마의 경우에는 5~10%,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2% 정도).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인구 비율이 6.8%로 기록된 것은 2001년 인구 조사 자료의 결과인데, 거기에는 자기증명(autoidentificación)의 방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

가 있는 것 같다. 이 방법의 적용 방식은 몇몇 전문가들과 원주민 조직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1999년에 미주개발은행(BID)은 이 비율을 25%로 평가했으며, 더 최근에 에콰도르원주민연맹(CONAIE)은 그 비율을 35%로 보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³⁾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Sisppi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2003년 페루의 원주민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이며,⁴⁾ 2004년 니카라과의 원주민 인구는 대략 10%라고 평가되었다.⁵⁾ 한편 2001년 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원주민 인구는 1.83%였다.⁶⁾

흑인 인구의 경우에 정보가 적다. 그렇기는 하지만, Celade와 Cepal의 전문가들이 이뤄놓은 평가들과 인구조사 자료들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도 Cepal 간행물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흑인 인구가 대략 1억5천만명 정도이며, 그 중에 50%정도는 브라질에, 20%는 콜롬비아에, 10%는 베네수엘라에 거주한다고 평가했다.⁷⁾ 2000년 인구조사 자료 검토에 근거한 2005년도 자료에서, 마르타랑헬은 브라질의 흑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5%를 대표하며, 에콰도르는 5%, 코스타리카는 2%, 온두라스는 1%라고 평가했다.⁸⁾

3) D. Mato, «Diversidad cultural e interculturalidad en educación superior. Problemas, retos, oportunidades y experiencias en América Latina. Panorama regional», pp. 30-32 en D. Mato(coord.), *Diversidad cultural e interculturalidad en educación superior*, cit.

4) Andrés Chirinos Rivera y Martha Zegarra Leyva, *Educación superior indígena en el Perú*, Asamblea Nacional de Rectores, Surco, 2005, p. 23.

5) Myrna Cunningham Kain, «Evolución, tendencias y principales características de la educación superior indígena en Nicaragua, a partir de la experiencia de Uraccan» en Unesco-Lesalc(comps.): *La educación superior indígena en América Latina*, Unesco-Lesalc, Caracas, 2003, pp. 171-195.

6) Avelina Pancho et al., *Educación superior indígena en Colombia, una apuesta de futuro y esperanza*, Universidad de San Buenaventura Cali, Cali, 2004, pp. 25-26.

7) Martín Hoppenhayn, Álvaro Bello y Francisca Miranda: *Los pueblos indígenas y afrodescendientes ante el nuevo milenio*, Serie Políticas Sociales N° 118, Cepal, División de Desarrollo Social, Santiago de Chile, 2006, p. 26.

8) Cepal / Fondo Indígena / Ceped, Santiago, 2005년 4월 27-29일 «Pueblo indígenas y afrodescendiente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세미나에 제출된 «La población afrodescendiente en América Latina y Los Objetivos de Desarrollo del Milenio. Un examen exploratorio en países seleccionados utilizando información censal». 총인구 자료와 이 집단들의 고등교육에의 접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보고서는 D. Mato, «Diversidad cultural e interculturalidad en educación superior, Problemas,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과 흑인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그들의 역사에서 두드러진 몇 가지 양상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평등과 현존하는 갈등들이 갖는 역사적 비중뿐 아니라, 그 중심에서 나오는 사회운동들의 의제도 놓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아메리카의 역사는 종종 학살, 토지 약탈, 원주민의 이주와 사회적, 지리적 재조직에다 노예 아프리카인들의 대량 수입까지, 정복과 식민화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그들의 종교를 금지하고 가톨릭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했으며, 일반적으로 그들의 언어도 금지했다. 그만한 일들이 그들의 선조로부터 내려 온 지식에 대해서, 특히 건강에 관한 지식의 영역에서 일어났으며(‘마밥’이라는 유럽의 이념과 결합되었다)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났다. 19세기 새로운 공화국들의 창설은 어떠한 식으로도 이러한 조건들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새로운 국가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으며, 교육 문화정책들을 통해 차이를 부정하면서 동질적인 국민적 상상체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물리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그 결과, 그 후 이주물결이 더해지면서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은 아주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표현에 대한 순진한 해석들이 암시하는 것과는 반대로, (종종 각각 원주민과 흑인을 암시하는 차이들이 정의되곤 하는 바에 의하면) 종족적 인종적 차이들은 사회적으로 견딜 수 없는,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정복과 식민화 초기부터 원주민들은 지배에 저항하려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시도했으며, 노예 아프리카인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수십 년 전부터 그러한 형태들이 ‘사회운동’이라는 이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원주민운동과 흑인운동은 아주 이질적인데, 그것은 국가와 다른 사회행위자들과의 관계의 차이와 국가적 맥락만큼이나 출신 촌락들의 다양함의 결과이기도 하며, 또한 각각의 지도부의 이념들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질성을 아는 것이 이러한 운동들의 몇몇 부문이 추진하는 고등교육에서의 운동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들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원주민과

retos, oportunidades y experiencias en América Latina. Panorama regional», cit., pp. 29-35에서 제공함.

흑인 조직들이 사실상 현행의 불평등한 상호문화적 관계에 대해서 ‘평등한 상호문화성’의 세계관과 제안과 정책들을 내놓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헌법을 포함하여 법적인 개혁을 위해서 투쟁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문화적으로 다른 형태의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각각의 국민국가가 다종족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그러한 것의 물질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형태의 시민을 ‘문화적 시민권’이라고 부르며, ‘평등한 시민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원주민의 언어와 정체성의 권리와 다른 성격의 권리들을 인정한다.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기아나,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의 헌법에서 이러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 실제로 이 지역의 모든 나라에는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 어떤 것들은 기타의 교육 영역에 관한 특별한 규범들로 표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규범들조차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

II. 원주민운동, 고등교육과 평등한 시민권

이러한 역사와 맥락과 투쟁들의 결과로서뿐 아니라 여기에서 분석할 수 없는⁹⁾ 국제적인 다양한 요소들의 결과로서, 몇몇 국가들과 고등교육 제도들과 재단들은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주민들과 흑인들이 ‘기존의’ 고등교육 제도에 접근하여 공부를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려고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과 흑인들 개개인이 이 영역에 접근하여 거기에서 그들의 공부를

9) 지면 상의 한계로 이전 출판물들에서 분석했던 몇몇 국제적인 요소들의 중요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D. Mato, 《Diversidad cultural e interculturalidad en educación superior. Problemas, retos, oportunidades y experiencias en América Latina. Panorama regional》, cit., y tb. 《Instituciones interculturales de construcción institucional, logros, dificultades, innovaciones y desafíos》 en D. Mato(coord.), Instituciones interculturales de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cit., pp. 13-78.

마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 불평등하다. 그것은 다양한 원인 때문인데, 그 원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나긴 차별의 역사와 그것들이 현재 표현되는 불리한 구조적인 조건들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이 ‘개개인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고등교육에서 이들의 역사와 언어와 지식과 제안들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정책들 역시 결국 새로운 헌법에 명시된 변화의 지평들과 이 사람들과 이들의 사회조직들이 요구하는 기술자들, 전문가들, 관료들, 정치인들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 기획에 이들의 지식과 언어와 제안들과 배움의 양식들을 통합하고, 그리하여 문화적인 다양성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시민권 형태들과 평등한 상호문화적 관계들이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고등교육제도(IES)가 라틴아메리카에는 아주 적다. 단일문화적이고 근대유럽의 유산을 순종적으로 따르면서 또한 세계시장에 연계되는 것 대신에, ‘모든 고등교육을 상호문화적이게 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보편적이게’ 만드는 작업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밖의 지역에서만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다른 사회 행위자들의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운동들과 흑인 운동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변화의 의제들을 가지고 투쟁한 결과, 최근 20년 동안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략 백여 개의 프로그램들과 고등교육제도들이 만들어졌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베네수엘라에는 경우에 따라서 IES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는 국가나 ‘기존의’ IES에 의해서 창출되고 유지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주로 원주민과 흑인들의 필요와 요구와 제안들에 응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많은 경우에 원주민과 흑인

10) D. Mato, «Actualizar los postulados de la Reforma Universitaria de 1918: las universidades deben valorar la diversidad cultural y promover relaciones interculturales equitativas y mutuamente respetuosas» en Emir Sader, Pablo Gentili y Hugo Aboites(comp.), *La reforma universitaria: desafíos y perspectivas noventa años después*, 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Sociales(Clacso), Buenos Aires, 2008, pp. 136-145; D. Mato, «No hay saber 'universal', la colaboración intercultural es imprescindible» en *Alteridades*, vol. 18 N° 35, 2008, pp. 101-116.

조직들은 그것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¹¹⁾

III. 몇몇 경험들

다음에는 원주민운동 부문들이 추진한 고등교육의 몇몇 중요한 경험들을 논평할 것이다. 원주민상호문화자치대학(UAIIN: Universidad Autónoma Indígena Intercultural)은 2003년에 카우카의 원주민지역위원회(CRIC)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1971년에 설립된 CRIC은 카우카의 원주민 촌락들의 전통적인 기구이며, 콜롬비아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CRIC은 또한 카우카 주의 교육부로부터 카우카 원주민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UAIIN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기구의 활동은 CRIC의 법적인 권한에 근거하고 있다. CRIC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원주민 조직들 중 하나이다. 카우카에는 대략 25만 명의 원주민(콜롬비아 원주민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9개의 서로 다른 촌락에 속해 있다. 문제는 원주민 인구가 비교적 높은 주라는 것이다. UAIIN의 전문적인 지도부 구성원들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CRIC은 창설 당시부터 “원주민 각자의 생활에 관한 계획이나 제안들과 정치적 문화적 기획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적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그것의 조직과 정은 결정들을 논의하고 취하는 다양한 공간들에서 교육을 문화적 회복의 정치적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중 언어 교사들의 양성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공동체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이후에는 “통치를 위한 지도자들, 건강을 돌보기 위한 대리인들, 토지의 경작과 생산 과정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생산 집단들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일정 범위의 생활조건의 개선이라는 문제에 대해, 성장하고 있는 원주민운동이 현재 자신들 스스로의 교육체제(Sistema Educativo Propio)라고 불리는 것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성과정들이다.” UAIIN은 ‘원주민들을 위한 본연의 교육, 말하자면 이미 어떤 것들은 각 촌락의

11) D. Mato(coord.), *Diversidad cultural e interculturalidad en Educación Superior*, cit.; *Instituciones interculturales de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cit.; *Educación superior, colaboración intercultural y desarrollo sostenible/buen vivir*, cit.

삶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공동체들의 비전과 문화적 상황과 필요성들과 기획들에 맞는 교육을 집단적으로 찾아 나선 30년 이상 동안의 조직 경험'의 결과이다.¹²⁾

2003년부터 실행된 몇몇 지도자 체험이 있고 난 후, 2006년에 아마존 원주민 훈련센터(CAFI: Centro Amazónico de Formación Indígena)가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조직 조정위원회(Coiab)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Coiab는 1989년에 창설되었으며, 브라질에서 가장 큰 원주민 조직이다. (지방조직들, 지역 연맹들, 여성, 교수, 원주민 학생 조직들을 포함하여) 75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아마존의 9개 주의 핵심 조직이다. 이 조직은 160개 원주민 촌락의 43만 명의 원주민(브라질 원주민 인구의 약 60%)을 대표하는데, 이들은 아마존 지역에서 1억 7백만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다. 테레나 촌락의 원주민이며, 종교와 환경문제에 관한 석사학위와 사회과학 학사학위를 받은 루시오 플로레스가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이 조직은 브라질 아마존의 원주민촌락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투쟁수단으로 창설되었다. 그들의 투쟁의 중심은 주로 그들이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즉 토지, 건강, 교육, 경제, 지속가능성과 상호문화성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Coiab의 조직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CAFI는 원주민 조직들에서 활동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공간이다. 거기에는 원주민의 대의를 위해 싸우는 지도자, 시민, 투사들이 되기 위한 정치적 훈련만큼이나 기술적 훈련의 질도 확보해주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면 과거를 들여다보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며, 무엇보다도 미래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플로레스는 강조한다. 현재 CAFI는 브라질 국가의 공식적인 승인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¹³⁾

국민들과 원주민상호문화대학(Universidad Intercultural de las Nacionalidades y Pueblos Indígenas) 아마우타이 와시(Amawtay Wasi, 학문의 집)는 고등교육

12) Graciela Bolaños, Libia Tattay y Avelina Pancho, 《Universidad Autónoma, Indígena e Intercultural》 en D. Mato(coord.), *Instituciones interculturales de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cit., p. 156.

13) Lucio Flores, 《Centro Amazónico de Formação Indígena(CAFI)》 en D. Mato(coord.), *Instituciones interculturales de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cit., pp. 104-112.

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며, CONAIE와 원주민문화연구소(ICCI: Instituto Científico de Culturas Indígenas)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CONAIE는 1986년에 조직되었으며, 에콰도르 원주민 조직들 전체의 핵을 이루고 있고, 전국적인 범위의 수많은 동원을 이루어냄으로써 에콰도르 정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중요한 정치적, 법률적 개혁들을 이끌어냈다. 9년간의 정치적 동원과 집중적인 기술적 노력 끝에 2005년에 아마우타이 와시 대학(UAW)이 국립고등교육위원회(Conesup, Consejo Nacional de Educación Superior)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국립고등교육체제의 일부를 형성했다. 교육을 제공하는 분야 중에서 두드러져 보일 만한 분야는 인권과 원주민, 농업생태, 교육학, 건축 분야였다. 이 대학은 “다국민국가와 상호문화적인 사회 건설의 토대로서 공동체적인 복된 삶에 희망을 두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우선시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¹⁴⁾ UAW 총장이자 법학 박사인 키추아족¹⁵⁾ 원주민 루이스 사랑고(Luis Sarango)가 설명하듯이, 대학은 “상호문화적”이라고 명명되는데, 왜냐하면 대학의 학문적인 제공과 권리회복들이

오로지 원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시각에서 현재 에콰도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와 촌락들을 위한 학문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본래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상호문화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사회들이 타자/타자들에 대한 존중에 토대를 두면서, 새롭고 평등한 사회관계들을 만들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대학은 창립의 주도권과 철학적이고 방법론적 개념이 국민들과 원주민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과 원주민들의’라고 불리지만, 어떤 식으로도 배타적이거나 원주민들만을 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⁶⁾

14) Luis Fernando Sarango, 《Universidad Intercultural de las Nacionalidades y Pueblos Indígenas ‘Amawtay Wasi’. Ecuador/Chinchaysuyu》 en D. Mato(coord.), *Instituciones interculturales de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cit., p. 193.

15) 에콰도르에서는 스페인어화된 ‘케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 촌락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언어의 명칭과 마찬가지로, 볼리비아와 다른 나라들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 부족의 이름을 발음하고 쓴다. 에콰도르에서는 보통 그것을 키추아(*kichwa*)라고 발음하고 쓰는 반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서는 케츠와(*kechwa*), 어떤 경우에는 케추아(*quechua*)를 이용한다.

16) L. F. Sarango: ob. cit., p. 193.

UAW의 두드러진 양상은 ‘발전’ 이념에 대한 비판인데, 이 이념은 진화, 문명, 동질화, 경쟁, 진보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로 세계를 보고 복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위압적이었다.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공동체적인 좋은 삶) 이러한 개념에 반대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복지는 통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조화로운 복지, 공동체의 수평적인 복지를 근거로 해서 측정되는 것이다. 각각의 원주민 촌락은 존중받아 마땅한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헤게모니에 대한 대안적 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투쟁에서 원주민들이 인류에 기여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¹⁷⁾ 이 대학의 당국자들은 CONAIE만큼이나 Conesup에도 중요성을 부여한다.

카우사이원주민상호문화대학(UNIK)의 설립은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의 기본적인 원주민 조직들과 전국적인 원주민 조직들 간의 협력의 결과인데, 그 조직들의 핵심은 틴쿠상호문화네트워크(Red Intercultural Tinku)에 있다.¹⁸⁾ 이 대학의 총장이며 교육자인, 볼리비아의 케추아족 원주민 레오넬 세루토는 UNIK가 원주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창설되었다고 주장하며, UNIK의 주요 목적은 교육활동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자신들 고유의 정부에 도달하기 위한 원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영토 조직화의 강화라고 설명한다. 세루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영토적, 정치적, 문화적 재건, 즉 자치정부와 같은 원주민운동의 역사적인 기획과 분리된 교육체제는 생각할 수 없다. 두 번째 목적은 그러한 자치정부를 실행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실천능력과 수단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UNIK가 만든 첫 번째 과정이 상호문화적 교육 과정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원주민의 권리 과정, 가장 최근에는 공적, 다국민적, 공동체적 관리(Gestion)라는 과정이었는데, 이 마지막의 것은 새로운 다국민적 국가를 지원해야 하는 사회조직들뿐 아니라 공적인 관리들도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2004년에 알베르토 루이스 아길라르 카예 의원은 UNIK가 공립대학으로 바꾸기 위한 법안을 냈는데, 예산

17) L. F. Sarango: ob. cit; 아마우타이 와시 상호문화대학, *Sumak Yachaypi, Alli Kawsaypipash Yachakuna/ Aprender en la sabiduría y el buen vivir / Learning Wisdom and the Good Way to Live*, Universidad Intercultural Amawtay Wasi, Quito, 2004.

18) Leonel Cerruto, «La experiencia de la Universidad Indígena Intercultural Kawsay(UNIK)» en D. Mato(coord.), *Instituciones interculturales de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cit., pp. 123-153.

상의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현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는 이 법안의 서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현재 UNIK는 볼리비아의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아길라르 카예(Aguilar Calle)가 오루로(Oruro)의 주지사로 선출되면서 UNIK의 특별한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이 주 원주민들의 영토적인 공동체 조직과 이 주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덧붙여서, 2008년 8월에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는 제29.664호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볼리비아 원주민 대학의 창립을 명령했는데, 이 대학은 세 개의 언어문화적 축, 즉 케추아, 아이마라, 과라니와 동부의 원주민들이라는 축을 통해서 조직되었다. 볼리비아의 원주민 교육에서 획기적이었던 이 사건은 UNIK가 쌓은 수 년 간의 경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87년의 헌법개혁은 니카라과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종족 공동체들과 원주민과 흑인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니카라과가 다종족, 다언어, 다문화 국가임을 확인했다. 니카라과는 카리브연안에 두 개의 자치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전 국토의 52%를 대표한다. 흑인이며 현재 니카라과 카리브해의 자치지역 대학(Uraccan)의 총장인 알타 후커(Alta Hooker)에 따르면, 이 대학은 두 자치지역의 원주민과 흑인 지도자들 집단에 의해서 창설되었는데, 전문가 양성과정에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의 이탈을 막으며,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배제와 주변부화에 대해 싸우며, 그들의 특수성에서 출발해서 국민적인 발전에까지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raccan의 학생들 대부분은 원주민, 흑인, 메스티소 인구가 있는 농촌지역 출신들이다. Uraccan은 1992년에 전국 대학위원회(CNU: Consejo nacional de Universidades)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2003년에는 양쪽 지역의 자치지역위원회들이 '원주민과 종족 공동체들의 고유자산'이라고 선언했다. Uraccan은 상호문화적 공동체 대학으로 인정받았는데, 거기에는 상호문화적인 시민권의 장려를 위한 흑인과 종족 공동체들, 메스티소, 원주민들의 정체성 발전과정이 동반된다. 이 대학은 종족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질을 갖춘 교육과정들을 발전시키고,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는 인류발전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리더십과 같이 가며, 인적자원의 양성을 통해서 자치체제를 강화하고, 종족적 문화적 부활 과정을 추진하며, 시민권과 인권의 행사와 향유에 관한 주제들이 토론되는 지방적, 전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성찰과 토론과 논쟁의 공간을 확립하려고 한다. 현재 Uraccan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같은 대학의 교수직 및 제도들과 조직들에서 지도부와 중간간부직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졸업생들은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들, 시와 지역의회의 의원들, 정부기구들의 대표들과 장들이다.¹⁹⁾ 알타 후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메리카의 원주민과 흑인들은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역사적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와 복지를 정의할 기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기결정권과 자치를 위해서 투쟁해 왔다. 원주민과 흑인들은 불리한 공간에서 투쟁해 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실업과 문맹과 유아사망율과 산모사망율이 높고, 질적인 기본 서비스들, 특히 모든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들에 의해서 빈곤화된 영토에 살고 있다. 니카라과의 카리브연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현실이다. 예외적으로 카리브 연안 지역과 태평양 지역의 원주민과 흑인 지도자들 간의 협상과 협력을 토대로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에 해안지역의 원주민과 흑인과 메스티소의 좋은 삶을 위한 토대로서 자치법이 승인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틀을 토대로, Uraccan이 창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에서 출발해서, 준비된 인적자원들이 책임감과 사회적 적절성을 가지고 자치과정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개입에 속박되지 않으며, 정체성을 가진 우리 고유의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²⁰⁾

원주민상호문화대학(UUI: Universidad Indígena Intercultural)은 2005년에 활동을 시작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원주민 발전을 위한 기금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1992년에 창립된 원주민 기금은 원주민의 권리 인정과 자치발전의 촉진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다국적 국제협력 기구이다. 22개국(라틴아메리카의 19개 국과 다른 지역의 3개 국)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국의 정부대표와 원주민대표들 간의 동일 조건에서의 동수 대표가 기본조건인데, 이 조건은 이 기구의 제도적 성격을 결정지으며 합의 구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원주민 촌락들, 공동체들, 조직들은 통치와 관리 기관 및 이 제도의 계획들과 프로그램들과 기획들에도 직접 참여한다.²¹⁾ UUI는 원주민들의 고유한 정신과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문

19) A. Hooker: ob. cit., pp. 279-292.

20) A. Hooker: ob. cit., pp. 295-296.

21) <www.fondoindigena.org/index.shtml>.

형성의 기회들을 가질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는데, 그러한 기회들은 원주민의 지식과 학문을 재평가하고 발전시킨다.²²⁾ UIII는 센터들의 연합네트워크(Red de Centros Asociados)에 의해서 형태가 갖추어졌는데, 이 연합네트워크에는 아마우타이 와시 대학, UAIIN, Umaccan 같은, 앞서 언급한 몇몇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학들 간에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IV. 논쟁을 위한 이념들

문화적으로 다양한 나라들에서 원주민 조직들이 추진한 고등교육의 경험들은 사적인 부문에서만뿐이나 공적인 부문에서도, 다른 것들 중에서도 건강, 환경관리, 지속가능한 발전, 권리, 교육(초등, 중등, 대학) 같은 영역에서 분별력 있고 효율적인 방식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물론 원주민 조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실천들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들과 지도자들을 형성하는 데 유용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들이 교육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몇몇 집단들이 침묵을 깨고 왜 이 사회집단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이념에서 교육하는 특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반문하게 만들곤 한다. 이 운동들은 ‘공식적인’ 교육이 원주민의 역사, 언어, 지식, 미래의 문제들과 제안들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각 나라의 ‘공식적인’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특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곤 한다. 게다가,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 대학, 기업대학, 엘리트의 대학들이 있을 수 있다면 원주민이나 흑인들의 대학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배타적이고 닫혀 있는 금지구역으로서가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상호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로 이해된다. 거기에서는 상호문화성이 연구 계획과 배움의 전략들에서 생각되고 표현되는데, 그 출발점은 원주민이나 흑인의 개념들, 즉 그들의 세계관, 인류역사에 대한 해석, 배움과 미래에 대한 제안이다.

문화적인 차이들의 중요성을 겨우 평가하며, 다른 문화들은 발전에 장애물이고

22) <www.reduii.org/sitio.shtml?apc=&cs=i>.

조만간에 모든 시민이 ‘근대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공식적인’ 세계관에서 상호문화적인 교육이 나오는 경우와, 국가들이 다문화적인 사회의 표현임을 인정할 필요성과 차이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운동들의 세계관에서 상호문화적인 교육을 하는 경우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 ‘타자들의 문화와 지식과 언어를 고려하는 것, 즉 그들의 역사와 문제와 제안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공식적인 역사’와 ‘근대과학’을 배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발잔’(이것은 아직도 진보와 경제성장이 라는 이념과 관련지어 이해되는데, 그러한 진보와 경제성장은 거기에 붙여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많은 처방약들[parches]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는 용어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인류에게 봉사하도록 하며 ‘자연자원의 원천으로 보이게 하는,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종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라고 보는 우주진화론(cosmogonías)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얼마 안 되는 세기를 거치면서 근대적인 서구 세계관의 헤게모니는 우리가 사막화, 물의 오염,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와 기타 다른 재앙들에 직면하게 만들었으며, 아직도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서구 근대적인 세계관이 갖는 시야의 편협함과 그것이 잠재적으로 가져 올 파괴적인 결과들을 알게 했다. 아직은 다른 우주진화론들이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사회운동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경험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원주민운동 부문들이 추진하는 고등교육 경험들이 갖고 있는 변화지향적인 가치는 기술가, 전문가, 정치가 집단을 양성하는 역할(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분명히 모든 사회운동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봐야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도 봐야 한다. 몇몇 집단들이 편협하게 주장하곤 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비판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환경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사회적인 것까지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더 많고 더 좋은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제안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운동들, 민주주의, 시민권 같은 주제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를 선거의 실현, 제도들과 헌법에 따라 신성시되는 규범들의 유효성으로만 이해한다면, 사회운동들이 몇몇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다른 사회부문들과 연합하거나 스스로 발전시켜 온 고등교육에서의 진전과 혁신이나, 몇몇 국가들과 ‘기존의’ 대학들이 앞서 말한 운동들의 요구와 제안에 응답하고 있는 것에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민주주의를 아주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국민국가 사회의 틀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시민권의 (양적인 것뿐 아니라)확대로 이해한다면, 결국 불가피하게 적어도 두 가지 요소에서 IES의 역할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권리의 완전한 행사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방해를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더 많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건설하기에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회집단들에게서 정치가, 전문가, 기술자 집단을 형성하는 데 IES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게다가 IES가 (사회집단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훈련기회들을 제공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라틴아메리카 사회들의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에 적절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흥미롭다. 말하자면,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유능한 전문가와 기술자와, 그와 더불어 각자의 활동영역에 중요한 세계관과 가치와 지식의 생산방식과 기술과 언어 등등을 양성하고 있다면 말이다. 이러한 양상들은 인류학자나 다른 전문가들의 흥미만 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다루어야 하고 (원주민 약초 채집꾼의 비밀들을 취해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특허를 내는 초국적 제약회사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다른 문화에서 나온 지식들을 이용하면 더 나은 전문가가 될지도 모르는 의사들에게도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소송들을 다루어야 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한 소송들 중 어떤 경우에는 갈등에 대한 통제, 규제, 해결 방식들이 그들의 출신 대학에서 공부한 것들과는 다른 것들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생산양식과 삶의 질을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경제학자들과 다른 ‘발견’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김윤경 번역)